

미국에서 한인 자영업에 관한 연구

최병목*

본 연구는 중간상인이론(Middieman Minority Theory)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이용이 가능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1) 순수 소수민족 중간상인의 전형의 하나로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규모 사업자그룹을 연구대상으로 했고, 2) 이민 후 소규모 사업가로의 전환이 이론적 측면에서 나타난 부정적 요인 또는 긍정적 요인 때문인가를 밝혀 보고자 했으며, 3) 한국이민 자영업자들의 경제구조에 나타난 역할 및 사회적 위치와 특성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연구자료는 1980년 미국 센서스의 5% 표본인 일반공개자료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중심부(core sector)와 주변부(periphery sector)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총 분석대상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6,435명(주변부 자영업: 1,087명, 중심부 자영업: 222명, 주변부 임금노동자: 3,192명, 중심부 임금노동자: 1,934명)이었다. 분석방법은 이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종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연구대상 중 재미 한국이민자들의 20%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80%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였다. 그러므로, 자영업 참여율만 가지고 볼 때 미국에 이민온 한국인들이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으로 모두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분석결과에 나타난 한국이민의 소규모 사업종사는 단순히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교육정도가 낮기 때문에 재미 한국이민들이 자영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설명도 최근 한국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상당수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재미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도 더 높은 직업명성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개설에 민족적 자원이 긍정적 측면의 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

* 인천발전연구원

타났다. 즉,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하고(매일 오랜 시간 일하고) 부지런하며, 값싼 임금으로 가족들이 자영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주변부와 중심부로 나누었을 때 한국 이민자들의 산업활동 상태는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재미 한국이민들이 미국사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볼 때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중간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분석그룹 중에서 중심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가구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이 주변부 자영업자, 중심부 대기업 임금노동자, 그리고 마지막이 주변부 대기업 노동자 순으로 수입정도가 나타났다. 가구당 노동자수는 임금노동자 경우 가구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그 밖에 재미 한국 이민 중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인 자영업 종사자들은 민족자원 이용의 유리한 점과 수입, 산업 및 직업 종류, 직업명성도 측면에서 본 사회적 위치는 중간(middle strata)에 놓여 있어서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언어문제나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기존의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은 재미 한국이민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1. 서론

1965년 미국이 이민법 개정을 한 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이 증가했다. 1970년대 초에는 2만명에서 3만명 가량이 매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Yu, 1983),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매년 3만명에서 3만 5천명으로 이민자수가 늘어났다가 그 뒤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2년 이후에는 2만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Min, 1996: 29). 오히려 최근에는 미국에 이민갔던 많은 한국인들이 이민 당시 가졌던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을 버리고 한국으로 아주 되돌아오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도 정확하게 미국내 한국인 수를 밝힌 적은 없지만, 1990년 미국 센서스는 미국내 한국인 수를 80만명으로 추계하고 있고(U.S. Bureau of Census, 1993: Table 23), 외무부 통계에 따르면 1991년 말 약 10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내 한국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영업분야에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있는 99

개 소수민족 가운데 한국인이 제일 높은 자영업률을 보인다(Yoon, 1996a: 127; U. S. Bureau of Census, 1984: 12).

본 연구는 재미 한국이민들의 자영업 실태를 중간상인이론(Middleman Minority Theory)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중간상인이론에는 세 가지 가정을 상정할 수 있다(Blalock, 1967; Bonacich, 1973; Light, 1972). 첫째, 이민자들은 사회적 위치에서 볼 때 사회엘리트층과 대중 사이에서 완충적 행위를 한다. 둘째, 이민자들의 경제 활동을 통한 중간상인 역할은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유통을 이룬다. 셋째, 이들의 사회계급의 위치는 자본가와 노동계급 사이의 소시민(*petite bourgeoisie*)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수민족의 중간상인이론 중에서 사회구조에 나타나는 경제적 역할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¹⁾

소수민족의 중간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이제까지는 4가지 이론이 등장하였다(Bonacich and Modell, 1980: 24~30; Light and Rosenstein, 1995; Min, 1983; Yoon, 1995, 1996a, 1996b). 첫째, 이데올로기 측면에 초점을 맞춘 순수편견이론(Pure-Prejudice Theory)이다. 둘째, 이민자들이 중간상인적 적성에서 중간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민사회에 처해진 노동시장에서 불리함 등의 전후관계가 그렇게 몰고 간다는 전후관계이론(Contextual Theories) 또는 노동시장불리이론(Labor Market Disadvantage Theory)이 있다(Yoon, 1996a, 1996b). 셋째, 각 소수민족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나 문화적 자산(*cultural capital*) 때문에 중간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는 문화적 이론(Cultural Theories)이 있다(Mavratsas, 1995). 예를 들어, 유대인이나 중국인들처럼 상인의 기질이 문화적으로 배어 있어서 새로운 사회에 이주해서도 상인기질을 발휘하게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Min, 1996: 18). 넷째는 역사적 상황구조에서 본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ies)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행위와 관계된 여러 사회학적 이론들 중에서 한국인의 기업가적 정신을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은 중간상인이론이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본다(Min, 1996).

현재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중간상인이론은 주로 이민자들이 농업과 비숙련직 배경을 가진 미국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였다. 그러므로 이전의 이민자들과는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최근의 이민자들을 대상으

1)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 중에서 정치계급의 이익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았다.

로 한 중간상인이론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이론적 배경

1) 중간상인 가설

어떤 학자들은 소수민족들의 소규모 사업 진출행위와 소수민족들의 커다란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신분상승을 설명하는 데 ‘중간상인이론’(Middleman Minority Theories), ‘소수민족사업이론’(Minority Business Theories),²⁾ 또는 ‘모델소수민족’(Model Minorities)이라고 불려왔다(Blalock, 1967: 79-84; Bonacich and Modell, 1980; Light, 1980). 예를 들어, 블라록(Blalock, 1967: 79)은 미국에서 어떤 소수민족은 “우수한 경쟁력과 높은 적응능력을 갖고 있으며 중개자적 위치에 놓여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나시치(Bonacich, 1973: 77)에 따르면, 소수민족 중개상인(middleman minorities)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소수민족들이 “경제구조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주와 고용자, 소유주와 세든 자,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소수민족 중개자로서 특별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특징으로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강력한 민족내 결집력·응징력을 갖고 있으며, 주류사회로부터 적개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Bonacich, 1973; Bonacich and Modell, 1980; Light and Bonacich, 1988; Min, 1983). 보나시치와 모델(Bonacich and Modell, 1980: 13)은 소수민족 중간상인들은 “사회의 맨 밑바닥층에 위치하기보다는 ‘중간’(middle)층에 위치하며”, 사업운영시에 자영업에 치중하며 강한 가족간의 유대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 치중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이민자들은 미국사회에서 두 가지 분야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어떤 이민자들은 주변부에 해당하는 소매상이나 이와 유사한 소규모 가게 등에 치중하고, 반면에 다른 이민자들은 중심부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개인의 독립성을 사업하면서 살릴 수 있는 일반병원, 치과병원, 변호사업, 회계사 등을 선호하는 경향

2) 기존연구에서는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Middleman Minority Theories)이란 용어는 ‘소수민족 사업이론’(Minority Business Theories)과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 있다(Bonacich and Modell, 1980: 17).

위와 같은 가정에 입각하여 재미 한국인의 소규모 사업행위를 기술한 연구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결과들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한국 이민가족들이 소규모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nacich, Light and Wong, 1980; Chai, 1981; Hurh and Kim, 1984; Kim, 1981; Min, 1983; Yu, 1982) (<표1> 참고).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재미 한국 이민가족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기존의 문헌에 따르면 재미 한국인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 즉, 1) 배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리한(부정적) 요소와 2) 흡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1> 재미 한국인의 자영업과 관련된 기존연구

연구자 (연도)	자영업 (%)	표본크기 및 출처	연구지역	비고
B. Kim (1937)	26.6%	192가구 중 52가구 사업중임, 석사학위논문	와히아와, 하와이	양복점 9, 구두수선점 4, 세탁소 38
H. Givens (1939)	11.2%	한인 650명 중 73명 사업, 석사학위논문	LA, 캘리포니아	과일 및 채소가게 33, 세탁소 8, 잡화점 9, 화물회사 6, 도매상 5, 식당 5
E. Bonacich, I. Light and C. Wong(1976)	25%	한인 16,000가구 중 4,000개 사업체	LA	저자의 추정치임
H. Kim(1977)	1,201사업체	1972년 미국센서스 국이 발표한 총 한국인소유업체	전국	
B. Choy	2.8%	5,550 한인 대상	호놀룰루, 하와이	1920년대의 한인 5,550명 중 3,550명 80명 사업체 소유, 75명 토지소유 농부

B. Choy (1979)	5%	10,000 한국인 대상	전국	미국 본토에 세계 2차대전 중의 1940년대에 50개 정도의 한인소유 중소기업이 있었음.
B. Choy (1979)	10%	전체 미주 한인 대상	전국	저자의 추정치임
J. Yum (1979)	13%	표본401개, 박사학위논문	하와이	18세 이상 1978년 5월 조사
Koo and Yu (1981), and E. Yu	37.6% 남:39.9% 여:34.0%	250 남:61/153 여:33/97	오렌지카운 티, LA	1978년 10월 Kim, S. 방법 사용하여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조사임.
I. Kim (1981)	34%의 남자가구	언급없음	뉴욕 메트로폴리 탄지역	1976 뉴욕
J. Wang (1981)	9.3%	표본수:365 박사학위논문	하와이	1981년 조사
Kim, Kim and Hurh(1981)	10% 남:11% 여:9%	부부 70쌍	시카고	1977. 8월-10월
Bonacich and Jung (1982)	한인 100명당 3.8명 자영업종사	언급없음 1977년 한인주소록	LA	한국인은 1977년 LA 총인구의 0.86%였고, LA에 2,268개의 한인 사업체가 있음.
P. Min (1983)	38% (학생 가족포함 34%)	902가족	애틀란타, 조지아	1982년 조사
Hurh and Kim(1984)	31.6% 남:34% 여:29%	615	LA와 오렌지카운 티	1979년 4월-6월 면접조사

P. Min (1986)	12.2%	언급없음 1980년 센서스	전국	1970-1980년간 자영업
K. Park (1987)	36%	언급없음 뉴욕퀸즈지역 중앙일보LA판	뉴욕 퀸즈지역	1987. 3. 5 동아일보 LA판
B. M. Choi(1987)	13.5%	8,833 1980 센서스	전국	25-64세 연령
I. Light (1987)	13.5%	1987. 3. 5 동아일보 LA판	LA	LA에 있는 한인중 자영업종사
<i>Dong-A Ilbo</i> (1987)	31%	150명의 세미나 참석자	남부 LA지역	1987. 8. 8; 90%가 장래 자영업종사원함(자영업 : 60%; 무역업: 30%)
P. Min (1988)	48% 남:53% 여: 36%	497 남:197/338 여:57/159	LA와 오렌지카운 티	1986년 9월-12월, 김씨 성 가진 성인만 표본으로 함.
I. Y. Yoon (1996)	24.3%	1% 미국 1990 센서스자료	미국전역	

2) 배출요인

라이트(Light, 1980)는 한국이민자들의 '영어 구사력의 미흡'이 미국 노동시장에서 제일 불리한 점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를 불편없이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이민자들은 단지 10%뿐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Light, 1980: 41).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국이민자들이 과대하게 자영업에 몰두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민자들이 영어를 말할 수 없으면 당연히 미국회사에서 직업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이들은 '다른 대안이 부재'한 상태이다(Bonacich, Light and Wong, 1976: 446; 1980: 179).

위에서 나타난 불리한 점 때문에 한국이민들은 미국사회 주류 직업구조 속에 임

금노동자로 쉽사리 들어가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자기 소유의 자영업을 운영하게 된다고 본다(Kim, 1981: 104; Min, 1987: 55; Yu, 1983: 36). 언어구사력 문제와는 별개로, 기존의 연구들(Light, 1980: 33)은 이민자들의 자영업 운영현상을 이민자들의 '낮은 또는 열등한 교육수준' 상태를 그 이유로 보고 있는데, 재미 한국이민들은 이와 같은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와 유(Koo and Yu, 1981: 1)는 한국이민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잘 표현하고 있다.

최근의 한국이민자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괜찮은 직업배경을 갖고 있으며, 남녀이민자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생산력이 높은 연령 등에 속하고, 이민자 중 여자와 어린이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타민족 이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미주지역에 골고루 퍼져 정착하고 있으며, 다민족사회를 이룬 미국 주요 대도시와 흑인 게토지역에서 자영업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재미 한국이민들은 주로 이미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층이며, 도시거주경험이 있고, 봉급생활자로 일하던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주요도시인 시카고, 호놀룰루,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등 네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약 72%의 자영업자가 한국에서 적어도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1977: 97). 그 중 10.8%는 미국에서 대학교육을 마쳤고, 16%는 미국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Hurh(1985: 88-89)의 연구에 따르면 94명의 한국인 자영업자 중 57명(61%)이 대학졸업자였다. 그리고 대다수가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대학교육을 마쳤고, 그 중 5%만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 시의 159개 한국인 자영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0%의 자영업주가 대졸자이고, 9%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Min, 1984: 337-346).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한인 자영업자들은 교육수준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다.

3) 흡인요인

소수민족들이 자영업으로 유인될 수 있다고 보는 긍정적 요인의 하나는 이들이 대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값싼 노동력

때문이라고 한다. 즉,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10대의 자녀들, 배우자, 남동생이나 여동생 또는 이들의 배우자가 있다(Bonacich, Light and Wong, 1980: 176; Cobas, 1987: 144; Kim and Hurh, 1985: 87-88; Min, 1984: 340). 이와 같은 한국이민의 가족자원으로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은 한국이민의 형태가 친족 연줄망을 통한 연쇄이민(chain migration) 형태를 띠므로써 더욱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Choi, 1992; Bonacich, Light and Wong, 1980: 179).³⁾ 예를 들어, 약 62%의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배우자와 같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 21%는 방과 후나 주말에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52%의 응답자들은 임금을 주지 않고 쓸 수 있는 고용자가 있었다(Min, 1984: 340). 한국이민 자영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로 오랜 시간 일하고 있었으며 가족들은 가족의 사업성공을 위하여 무임금으로 일하고 있다.⁴⁾ 지속적인 새로운 이민에 따른 노동자의 공급과 무료로 쓸 수 있는 노동력은 사업성공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인의 자영업은 어떤 특정분야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보나시치, 라이트 그리고 왕(Bonacich, Light and Wong, 1980: 180)의 연구에서 보면 한국인들은 미국의 독점자본주의제도에서 저개발지역내에서 소규모의 거래나 서비스업에 집중현상을 보인다.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미국내 생산품 분배 활동뿐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생산품까지도 수입하여 상거래 활동을 하고 있다. 한인 자영업자들은 중요대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중간상인의 역할로서 세탁업, 한인식당을 비롯한 페스트푸드점, 봉제공장과 같은 소규모 공장, 소매점(주유가게, 선물가게, 베퉼시장 등), 한국인 고객을 위한 소규모 수출입업, 독립 잡화점(미니마켓, 야채와 과일가게 등), 주유소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Korean Community in Hawaii, 1986: 196-215; Kim, 1981, Chapter4; Light, 1980; Yoon, 1996a).

보나시치는 소수민족의 직업시장이 주변부와 중심부 두 개로 갈라진다고 주장한다(1972: 547). 한국이민들은 경제구조에서 중심부에 위치한 제조업이나 중공업 분야를 피하는 반면 주변부에 위치한 고객을 서비스하기 위한 중간상인적 직업과 자원 동원에 유리한 쪽에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민들은 무언가

3) 대한민국 외무부에 따르면, 78.4%의 재미 한국이민들은 친척의 초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앙일보》, 1986년 7월 1일 1면).

4)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소규모 가게주인들은 적어도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os Angeles Times, 1988년 3월 14일 5면).

자기 사업을 하는 것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젖어 있다(Bonacich et al., 1980: 180).

요약하면, 영어의 어려움과 낮은 수준의 교육은 한국이민들이 이민국내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불리한 '배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전 반적인 한국이민의 교육수준이 높다고는 하더라도, 소집단별로 나누어 볼 때 차이는 아직 미지수이므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반면에 한국이민의 부지런함과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은 한국인들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데 긍정적 '흡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

기존의 한국이민들의 자영업 연구에는 몇 가지 보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연구대상이 된 표본수가 매우 적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표본수가 500개 미만이었다.

둘째, 종전의 연구들은 자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한인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경우 연구자들은 한국이민들이 새로운 땅에서 경제적인 적응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영업 증가를 보았던 것 같다(Bonacich et al., 1980; Kim, 1981; Light, 1980; Min, 1983, 1987; Yoon, 1996a, 1996b). 또한 일부학자들은 한국인의 자영업 주 연구를 통하여 전통적 의미에서 본 미국이민의 소수민족 성공사례로 보고자 했는데 이는 전체 재미 한국이민의 일부에 국한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가 곤란하다.

셋째, 재미 한국인 자영업 연구에서는 연구표본 선정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들은 표본 선정시에 특정의 좁은 지역에서 발행되는 한인록이나 사업소 명단에서 표본들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주소록이나 사업자 명단은 미국내 한국인들의 높은 이주율 때문에 그 정확도가 의심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이민의 미국내 이동률은 일반 내국인들보다 두 배나 더 높다(Yu, 1983). 그뿐만 아니라, 한인주소록에 사용된 한국인 성명은 주로 한국인 교회, 각종 사교 모임, 상공회의소 명단, 동창회 명부 등에서 취합된 것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협회나 모임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 자기 이름이나 사업을 구태여 한인주소록 명단에 넣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나, 주소록에 자기사업체 선전을 원치 않거나 광고료 지불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이 아닌 다른 민

족과 결혼함으로써 한국인 성씨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상대하는 고객이 주로 한국인 고객이 아닌 경우 등은 한인주소록에서 누락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간상인이론을 사용하여 한국의 전통에는 한국민들이 강한 사업성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민사회현상으로 나타난 한국이민들의 많은 자영업 운영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다(Kim and Hurh, 1985: 101).

새로 이주한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생존하고,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며,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일주일, 또는 하루에 일하고 있으며, 실제로 얼마나 수입을 올리며, 미국내에서 사회적 지위는 과연 어떠한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 기존의 연구에서 못다룬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전국 센서스자료를 이용했다. 왜냐하면 전국 센서스자료는 충분한 표본수를 제공해 주고, 미국 전역에 비교적 다양하게 퍼져 있는 한국이민들을 연구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임금노동자들도 함께 연구대상으로 다룰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이민자들의 현황분석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가 중간상인이론을 적용하여 이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과연 한국이민들의 경제 또는 사회활동이 중간상인이론으로 적합하게 설명이 될 것인가?

한국이민들의 자영업 실태파악 연구에서 몇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배출요인으로서는 영어구사력과 교육수준을 고려했다. 그리고 가족내 근로자수, 가족성원간의 관계, 근무주일수와 근무시간은 흡인요인으로 분석에서 사용했다. 그리고 중간상인 가설과 관계되는 산업형태, 직업, 수입변수들이 분석에 첨가됐다. 이들 변수들은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로 구분하고 주변부와 중심부로 세분하여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연구하였다.

기존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다음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된다.

- 1) 자영업자들은 임금노동자들(wage and salary employment) 보다 주변부와 중심부에서 더 많은 언어장벽이 있는가,
- 2)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가 4개 그룹간에 존재하는가,
- 3) 4개 그룹간에 직업명성도에 따른 차이가 과연 있는가,
- 4) 4개 그룹간에 가구내 근로자수에 따른 차이는 생기는가, 그리고

5) 최근 재미 한국인 이민자들 중 수입의 차이가 4개 그룹간에 나타나는가

3. 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미국 1980년 센서스자료 중에서 5% 일반공개표본 A형(public use sample 'A')을 사용했다. 총 분석대상은 25세 이상 64세까지 재미 한국이민 6,435명이었다.

1) 변수

(1) 자영업과 임금노동자에 관한 산업부문 변수

자영업과 임금노동자에 관한 변수는 센서스자료 중에서 2개 변수를 사용하여 새로 만든 변수이다.

첫째로 센서스에서 조사된 산업변수(industry variables)를 연구목적에 맞도록 재부호화하여 산업부문 변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산업부문 변수는 탈버트, 호란 그리고 베크(Tolbert, Horan and Beck)의 산업분류표에 따라 주변부문 산업과 중심부문 산업으로 분류했다(1979: 1095-1116). 주변부 산업은 그 특징이 1) 사업을 시작하기도 쉽고, 2) 사업자 고유의 자원(indigenous resources)을 사용할 수 있고, 3) 작은 규모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4) 노동집약적이며 다른 기술을 쉽게 적용해 쓸 수 있으며, 5) 가족 중심의 사업체가 될 수 있고, 6) 정규 학교교육을 통하지 않은 기술도 이용할 수 있으며, 7) 경쟁적이며 어떤 규정에 매이지 않은 시장구조 속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중심부 산업의 특징은 1) 주변부 산업보다 시작이 어렵고, 2) 직업이 안정되며, 3) 좀더 큰 규모로 운영할 수 있으며, 4) 자본집약적이며 고유의 기술을 개발·적용할 수 있고, 5) 법인조직을 통한 소유형태를 취할 수 있고, 6) 공식채널을 통한 기술획득이 요구되고, 7) 독립 등의 형태를 통한 일종의 보호되고 좀더 안정된 시장을 갖는다.

산업부문 변수를 만들기 위해 두 번째로 사용된 변수는 근로자 계급변수(class of worker variable)였다. 이 변수는 고용된 조직의 소유타입을 묻는 것이었다. 원래는 7개 범주로 1) 개인기업의 임금노동자, 2) 공무원(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3)

자영업(self-employed workers) (법인체와 비법인체로 세분됨), 4) 무보수 가족근로자 등이었다. 근로자 계급변수는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로 재분류하였다.⁵⁾ 그리고 이 변수에서 공무원과 전혀 일한 경험이 없거나 연령이 16세 이하 등의 경우는 비해당자로 분류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상 전체사례의 9.5%인 공무원(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근무) 838명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공무원이 되려면 미국시민권 취득자여야 하며,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은 언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등의 또 다른 관문인 자격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보수 근로자들은 자영업의 무보수 범주에 포함시켰다.⁶⁾ 예를 들어, 어떤 배우자나 자녀들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하더라도 '근로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분석대상 중 미주 한국이민의 경우 농업, 어업, 수산업 분야에 일하는 사람은 0.8%인 75명뿐이었다. 그 중에서 11명은 농부, 27명은 농장근로자, 20명은 정원일을 돌보는 근로자들이었다. 이들 정원근로자들을 빼고 나면 농업관계자들은 0.6%인 55명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한국이민의 무보수 가족근로자들은 자영업 운영과 밀접히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은 무보수 자영업 부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된 재부호화된 두 변수를 이용하여 산업부문 변수를 주변부부문과 중심부부문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주변부와 중심부부문은 각각 비임금근로자(자영업)와 임금노동자(wage salary worker)로 세분하였다. 따라서 4개 그룹인 1) 중심부 자영업, 2) 중심부 임금근로자, 3) 주변부 자영업, 4) 주변부 임금근로자로 세분되었다.

5) 연구목적상 전체응답자의 17.7%인 1,560명은 '비해당'에 적용됨으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1975년 전에는 일을 한 경험이 없고, 조사당시 16세 이하였다.

6) 1980년 미국 센서스의 Technical Documentation Part II Information Applicable to Summary Tape Files 15(p. 225)에 따르면, 무보수 가족근로자란 결혼이나 혈연으로 관계되는 사람이 농업이나 소규모 사업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농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나 배우자들이다. 미국의 경우 대체로 무보수 근로자의 약 절반이 농장근로자들이다. 그리고 센서스 정의에 따라 조사 당시 일주일간 15시간보다 적게 일한 가족근로자들은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영어

1980년 센서스문항에는 영어구사능력에 관한 두 가지 설문을 각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질문했다. 하나는 “이 분은 집안에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만일 대답이 “네”인 경우는, 그러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라고 계속하여 묻게 되고, 만일 대답이 “아니오”인 경우는 집안에서는 오직 영어만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⁷⁾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 분은 얼마나 영어를 구사하십니까?”였다. 응답 범주는 “1) 영어를 아주 잘한다, 2) 잘한다, 3) 잘 못한다, 4) 전혀 못한다”였다(U. S. Department of Commerce, 1982, PartII: 320). 여기서 위의 2개 언어변수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영어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새로 만들었다. 즉, 1) 영어를 잘 못하거나 전혀 못하는 경우, 2) 영어를 아주 잘하거나 잘하는 경우, 3) 오직 영어만 항상 사용하는 경우로 변수범주를 새로 만들었다.

3) 직업

1980년 센서스에는 직업분류가 535개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은 11개 항목으로 대분류했는데 1) 대기업 및 고급행정관료직, 2) 특수전문직, 3) 기술직, 4) 판매직, 5) 행정지원직, 6) 서비스직,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수리세공업, 9) 기술조정직, 10) 운전 및 운송직, 11) 단순노동 및 청소직 등이었다. 그리고 직업명성도는 템(Temme)의 측정방법을 사용했다(Temme, 1975).⁸⁾

7) 다행히 한국이민들의 경우, 센서스에서 나타난 '3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례수는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기가 용이했다.

8) Barringer와 Takeuchi(1987: 20)는 Temme의 직업명성도가 '일종의 주먹구구식 추측성'이 강하므로 비교수준에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추천한다. 이런 점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므로 사용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4) 자영업 또는 소규모 사업에 관한 정의⁹⁾

미국 센서스 코드북에 따르면(U. S. Department of Commerce, 1982, *1980 Census Technical Document Part II: 224-225*) 자영업자란,

어떤 사람이 회사형태의 사업, 전문직, 거래, 또는 농장운영 등을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큰 상점과 공장 등을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규모 상인, 독립기술자 및 전문가, 농부, 거리상인, 그리고 자신을 위한 모든 사업운영이 포함된다. 그리고 법인화된 사업의 소유자는 그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사기업 임금노동자 범주에 들어간다.

그리고 자기 회사의 근로자란 것은 “그 사람이 사기업의 대부분 또는 모든 주식을 소유함을 의미하며 대체로 자영업자로 자신들을 간주한다”(U. S. Department of Commerce, 1982: 224).

4. 분석결과

먼저 분석대상이 된 6,435명의 한국이민들 중 자영업자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았다.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한국이민자들은 임금노동자들이었고 자영업자는 10명 중 2명이었다.¹⁰⁾ 재미 한국이민자들은 66.5%인 대부분이 주변부부문에 일하고 있다(주변부 자영업: 1,087명, 주변부 임금노동: 3,192명). 그리고 단지 222명의 사업자만이 미국사람의 중심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에

9) 아직까지 ‘소규모 사업’(small business) 또는 자영업에 관한 뚜렷한 정의가 없다(White, 1981: 3). 어떤 학자들은 자영업이란 업자 스스로 주관이 되고, 대체로 스스로 자본을 마련하고, 개인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시장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경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Hollander, 1967: 5).

10) 1980년 미국 센서스자료에는 오히려 적게 나타난 것 같다. 즉, 13.5%의 재미 한국이민들이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병갑 교수는 1970-1980년 사이에 미국으로 이민온 한국인들의 12.2%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타난 전체 재미 한국이민들의 자영업 참여율 약 20%만 갖고 미국에 이민온 한국인들이 중간상인이론을 가지고 전적으로 다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불리한 요인으로 본 영어

〈표2〉는 중간상인이론의 가설에서 살펴본 소수민족들이 갖는 불리한 요인 때문에 소수민족이 자영업에 들어간다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언어사용 중

〈표2〉 재미 한국인의 자영업 운영에 부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영어능력 및 교육정도 (단위: %)

구분	자영업		임금노동	
	주변부 (N=1,087)	중심부 (N=222)	주변부 (N=3,192)	중심부 (N=1,934)
언어사용				
영어만	4.4	10.8	9.2	11.6
집에서 한국말	92.6	86.0	87.3	86.2
집에서 다른 언어	3.0	3.2	3.5	2.2
영어구사능력				
전혀 못함	1.7	1.4	4.1	2.3
잘못함	26.7	17.6	28.0	26.9
잘함	45.1	39.2	37.0	38.3
아주 잘함	22.1	31.1	21.6	20.8
영어만 씀	4.4	10.8	9.2	11.6
교육정도				
고등학교 이하	6.1	1.4	12.0	8.8
고등학교	29.7	14.9	42.8	37.7
대학(1-3년)	15.5	14.0	17.8	18.5
대학(4+)	48.7	69.8	27.4	34.9
평균 학업년수*	14.1(3.5)	16.1(2.9)	12.7(3.8)	13.4(3.6)
평균 직업명성도 점수**	46.9(15.0)	60.0(20.2)	36.5(15.6)	39.8(14.0)

주: * 전체 표본수의 평균 교육년수는 13.3년(3.4 SD)

** 전체 표본수의 평균 직업명성도 점수는 40.0(16.1 SD)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값(SD)임.

류, 영어능력, 교육수준 등을 분석한 것이다. 영어능력 변수에서 볼 때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즉,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영어구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이민자들은 사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 영어를 더 잘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중에서 중심부문의 자영업자들은 주변부부문의 자영업자들보다 좀더 영어를 잘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주변부부문의 자영업자들(4.4%)보다 더 많은 수의 중심부부문의 자영업자들(11%)은 집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 임금노동자들도 자영업의 경우와 영어구사력에서 각 부문별로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과해석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응답자들이 집에서 한국말을 쓰더라도 밖에 나와 활동시에 영어사용이 유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이민자들이 자영업을 하는 것이 중간상인이론에서 제기되는 것과 같이 영어사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2) 불리한 요인으로 본 교육수준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그들의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자영업에 과다히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한국이민의 경우는 사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 교육수준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심부부문 근로자들은 주변부부문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기간동안 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자영업과 사기업 임금노동자 모두에게 같이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재미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기존의 중간상인이론에서 주장하는 교육수준이 낮아서 자영업을 택한다기보다는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서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3) 긍정적 요인으로 본 민족자원

소수민족의 중간상인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은 한국이민의 가족자원(family resources)이 한국이민의 자영업 개설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집안의 성장한 자녀들은 소규모 가족사업에 잠정적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 연령을 통제하지 않고 보았을 때 주변부부문

의 자영업자들은 평균자녀수가 제일 많았고(2.21명), 중심부부문에서는 자영업(1.69명)과 임금노동자(1.62명) 모두 가장 적은 수의 평균자녀수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주변부부문과 중심부부문간에는 0.5명의 평균자녀수가 차이하고 있다. 반면에 임금노동자 경우는 주변부부문과 중심부부문간에 0.13명의 평균자녀수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4개의 부문별 응답자들의 연령과 출산력 수준에 기인할 수도 있다.

평균 가구원수는 전체응답자의 경우 3.83명(평균편차: 1.54)이었다. 그리고 주변부부문에 나타난 자영업자(4.29명)와 사기업 임금노동자(3.80명) 간에는 0.6명의 차이가 있다. 반면에, 자영업자(4.14명)와 사기업 임금노동자(3.80명)의 중심부부문에서는 0.3명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구원수가 자영업자들은 주변부부문에서 약간 많은 반면 사기업 임금노동자에게는 근소하지만 이와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가구당 근로자수(평균 1.97명)와 핵가족내 근로자수(평균 1.69명)에서는 서로 비슷한 경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가구당 근로자수에서 볼 때 주변부부문(2.00명)과 중심부부문(1.99명)간 사기업 임금부문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핵가족 근로자수에서도 주변부부문(1.66명)과 중심부부문(1.70명)간에도 사기업 임금부문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반면에 주변부부문에서 중심부부문보다 평균 0.4명이 가구당 근로자수(2.03명과 1.78명)와 핵가족내 근로자수(1.63명과 1.44명)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중간상인이론에서 주장하는 민족적인 장점자원으로서 나타난 인구학적 요인들은 재미 한국인들이 주변부부문의 자영업 진출 설명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개 부문간에는 인구학적 요인들이 상호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한국인의 중간상인이론 적용에 부지런함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연간 근무주일수, 주당 근무시간수, 연간 총 근무시간수를 1979년을 기준으로 알아보았다(〈표3〉참고). 일한 시간수를 통틀어 볼 때 자영업자와 사기업 임금노동자간에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 연간 평균 6·7주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미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주변부부문과 중심부부문 모두에서 사기업 임금노동자들의 주변부부문과 중심부부문보다도 주당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지런함과 열심히 일한다는 측면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는 중간상인이론으로 재미 한국인의 자영업 실태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표3〉 재미 한국인의 자영업 운영에 긍정적 요소로 볼 수 있는 민족적 자원

구분	평균	자영업		임금노동	
		주변부	중심부	주변부	중심부
출생아수	1.77 (1.51)	2.21 (1.40)	1.69 (1.28)	1.75 (1.57)	1.62 (1.44)
가구원수	3.84 (1.54)	4.29 (1.48)	4.14 (1.46)	3.70 (1.55)	3.80 (1.52)
가구당 근로자수	1.97 (1.00)	2.03 (0.95)	1.63 (0.84)	2.00 (1.00)	1.99 (1.00)
1차 가족의 근로자수	1.69 (0.98)	1.78 (0.91)	1.44 (0.76)	1.66 (1.02)	1.70 (0.98)
근무주일수(1979년)	37.9 (18.7)	41.0 (17.3)	42.8 (15.9)	35.4 (19.7)	39.8 (17.6)
주당 평균근무시간(1979년)	36.9 (17.5)	43.2 (21.0)	41.9 (18.4)	34.0 (17.4)	37.3 (13.8)
1979년 총 근무시간	1,801 (827)	2,187 (975)	2,135 (867)	1,648 (808)	1,784 (669)

주: () 안 값은 표준편차(SD)임.

4) 직업과 기타의 특성

다음은 산업, 직업, 그 밖의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표4〉는 4개 부문에 관한 산업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주변부부문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종사하는 산업분야는 주로 소매업, 개인서비스, 수리서비스, 전문직 및 관련서비스, 도매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심부부문에서는 주로 전문직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등이 있다. 그러나 사기업 임금부문의 근로자들은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집중형태가 자영업자들과는 다르다. 사기업 주변부 근로자들은 약 3분의 1이 소매업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5분의 1은 제조업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반면에 중심부부문의 근로자들은 제조업분야 산업(약 3분의 2), 재정분야, 전문직과 그에 관련된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11) 《중앙일보》(1987년 9월 29일 1면)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분야는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6년 34%에서 1987년 7월에는 19%로 감소하고 있었다.

〈표4〉 재미 한국인의 소수민족 중간상인측면에서 본 산업별 특성

	자영업		임금노동	
	주변부(%)	중심부(%)	주변부(%)	중심부(%)
농업·임업·수산	2.8		1.6	
탄광	-	.5	-	.5
건축	-	14.9	-	5.8
제조업				
비영구재	3.0	13.1	14.9	17.9
영구재	1.8	6.8	5.5	46.0
교통·통신	1.9	1.8	1.4	6.6
도매업				
비영구재	4.3	4.1	2.8	2.1
영구재	.6	5.9	1.0	2.4
소매업	58.3		33.4	
재정, 보험 및 부동산업	1.7	3.2	1.8	10.7
수리서비스	6.2	-	6.8	-
사적 서비스	11.7		10.0	-
오락 및 유흥업	1.9	-	1.6	-
전문직종	5.9	50.0	19.2	8.0
(사례수)	1,087	222	3,192	1,934

〈표5〉는 재미 한국인들의 직업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뚜렷한 결과를 볼 수 있다. 첫째, 주변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중심부부분의 자영업자들보다 더 많이 판매직(48.4%)과 경영·행정관리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변부부분의 사기업 임금노동자들은 비개인적 가구근로자(non-private household workers)를 포함한 서비스 관련직업(84.4%)과 특수 전문직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수 전문직종의 경우 중심부 자영업(12.2%) 경우와 대조적 현상을 보여준다. 사기업 임금근로자의 중심부부분에서는 기술직 및 관련업(51.3%), 행정보조(53.9%), 수리 및 세공업(46.6%), 기계조작 및 조립업(52.3%) 등의 종사자가 많았다. 이와 같은 직업분포현상으로 볼 때 재미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주변부부분

〈표5〉 재미 한국인의 자영업 및 임금노동자의 주변부와 중심부 종사자의 특성

	전체		자영업		임금노동	
	%	N	주변부 N=1,087	중심부 N=222	주변부 N=3,192	중심부 N=1,934
전체	100.0	6,435	16.9	3.4	49.6	30.1
이민연도						
미국 태생	100.0	297	9.1	5.4	48.8	36.7
1950년 이전	100.0	15	26.7	6.7	40.0	26.7
1950-59	100.0	189	15.3	5.8	41.8	37.0
1960-64	100.0	334	20.7	3.3	42.8	33.2
1965-69	100.0	669	19.6	6.6	44.2	29.6
1970-74	100.0	2,170	22.4	3.7	48.0	25.8
1975-80	100.0	2,161	12.3	2.1	53.6	31.9
직업						
회사대표·행정관리직	100.0	663	40.4	6.2	31.4	22.0
전문직	100.0	784	12.2	12.2	53.7	21.8
기술직	100.0	193	.5	2.6	45.6	51.3
판매직	100.0	922	48.4	1.7	42.5	7.4
사무직	100.0	540	5.4	2.6	38.1	53.9
서비스업	100.0	1,039	8.2	.1	87.4	4.2
농·임·어업	100.0	72	34.7	-	62.9	1.4
제조기술직	100.0	682	12.9	5.3	35.2	46.6
기계운전직	100.0	1,249	1.8	.7	45.2	52.3
중장비·운전직	100.0	66	15.2	6.1	39.4	39.4
기술보조직	100.0	225	7.1	-	41.3	51.6

에서는 거래업(trade and commerce)에 집중해 있고, 사기업 임금노동자들은 주변부 부문에서 서비스업종에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와 사기업 임금노동자 모두 전문직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즉, 자영업부문에서 재미 한인들이 소수민족 중간상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직업명성도를 통해 직업차별여부를 조사하였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직업명성도는 사기업 임금부분보다 훨씬 높은 직업명성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변부부문의 자영업자들도 직업명성도에서 중심부부문의 자영업자와 사기업 임금노동자 사이의 중간위치에 놓여 있었다(〈표2〉 참조).

거주기간별 차이를 보면, 한국이민들이 미국에 오래 거주했을수록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 1975-80년에 이주한 코호트는 예외였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들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4개 그룹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여자보다도 더 많이 중심부부문(81.1%)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여성들은 주변부부문에서 남자보다 두 배 이상이나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들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 기혼이건 미혼이건 간에 한국이민들은 4개 그룹간에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는데, 10명 중 9명은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나타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들은 4개의 그룹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여부는 시민권자나 아니냐에 따라 자영업자와 사기업 임금노동자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의 경우,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주변부부문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미국 시민권이 있는 한국이민들은 중심부부문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미국의 대도시 지역(SMSA) 변수에서 보면 자영업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심부부문 사업은 약간의 예외가 있다.

5) 수입

이번에는 재미 한국이민들이 과연 얼마나 경제적 면에서 성공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1979년도의 가구당 연수입을 알아보았다(〈표6〉 참고).

1979년 재미 한인이민의 가구당 평균 연수입은 중심부부문의 자영업 소유자가 38,320달러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주변부부문의 사기업 임금노동자들의 가구당

〈표6〉 재미 한국인의 자영업 및 임금노동자의 주변부 및 중심부 근무자의
 평균가구당 수입 및 일반적인 특성 (단위: %)

평균	자영업		임금노동	
	주변부 N=1,087	중심부 N=222	주변부 N=3,192	중심부 N=1,934
성별				
남	59.0	81.1	33.4	53.1
여	41.0	18.9	66.6	46.9
결혼상태				
미혼	3.3	3.6	7.4	8.8
기혼	96.7	96.4	92.6	91.2
출생상태				
외국태생	97.5	92.8	95.5	94.4
미국태생	2.5	7.2	4.5	5.6
시민권				
비시민권자	57.3	44.6	62.5	59.5
시민권자	42.7	55.4	37.5	40.5
대도시거주				
교외	3.8	8.5	4.3	4.5
대도시	96.2	91.5	95.7	95.5
1979년 가구수입				
달러	24,094	26,345	21,982	24,682
표준편차	(15,927)	(18,234)	(15,317)	(14,219)

평균 연수입이 26,982달러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 좀더 세분화해서 보면, 주변부(26,345달러)와 중심부(24,682달러)의 자영업자들은 주변부(21,982달러)와 중심부(24,682달러) 대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 높았다. 한인 자영업자들은 대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 약 5,753달러를 더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당 연수입의 차이는 주변부부문 자영업과의 경우가 11,310달러로 더 크게 나타났다. 가구당 월수입 분석결과로 볼 때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자영업 운영은 교육연수와 직업변수에서 나타났듯이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inger et al., 1987).

6) 회귀분석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이민의 성공여부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가구자료 파일을 이용하여 표준회귀분석기법을 분석에서 사용했다. 종속변수는 가구수입이었다. 가구수입은 개인수입변수보다 아시안계 이민의 성공여부로 조사하는 데는 더 타당성이 높다고 알려져 왔다(Barringer and Takeuchi, 1987).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는 가구당 근로자수, 1979년 근무시간, 국제 직업명성도, 교육연수, 성별 등이었다.

〈표7〉의 파넬A는 4개 모델별 상관계수행렬(correlation matrix)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 성별변수는 4개 모델 모두에서 가구당 평균수입변수와 질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여기서 남자는 0, 여자는 1로 부호화하였다). 주변부부문 자영업업을 제외하고 응답자의 학업연수와 직업명성도 변수는 제일 높은 상관계수값을 갖는다(대체로 0.5 이상). 그리고 종속변수인 가구수입 변수와 직업명성도간에는 중심부부문 자영업의 경우에 높은 상관계수(0.55)를 나타내고 있다.

〈표7〉의 파넬B는 4개 모델별로 회귀분석을 통해 얻어진 가구수입 예측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변부부문 자영업의 경우 5개 독립변수를 가지고 0.001의 유의수준에서 약 17%의 변량이 설명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그룹의 모델에 나타난 설명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각각 34% (중심부부문 자영업), 36% (주변부부문 임금노동자), 38% (중심부부문 임금노동자)로 설명변량값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당 근로자수 변수는 다른 4개의 독립변수를 통제했을 때 한 개 단위당 값이 변할 때(one single unit change)마다 가장 많이 가구당 월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변부 임금노동자(5,763달러이며 Beta값은 0.352)와 중심부 임금노동자(5,137달러이며 Beta값은 0.306)의 경우 근로자수가 변함에 따라 가장 많은 가구수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부문에서보다 사기업 임금노동자부문에서 노동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예상되는 가구수입은 더 큰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변부부문 자영업에서 4,151달러). 왜냐하면, 추가로 근로자 한 명을 더 갖는다는 것은 대다수의 경우 보편적으로 가구당 실질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고 분석했을 때, 대체로 여성근로자들은 남성근로자

〈표7〉 자영업 및 임금노동자의 중심부 및 주변부로 나뉜 상관관계, 매트릭스와 표준다중회귀분석

A) 상관관계 매트릭스

	가구수입	성별	교육	직업명성도	1979년 근무시간
1) 자영업 주변부					
성별	.077				
교육	.204	-.188			
직업명성도	.317	-.059	.274		
1979년 근무시간	.180	-.068	-.003	.049	
가구당 근로자수	.186	-.075	-.053	-.055	.094
2) 자영업 중심부					
성별	-.124				
교육	.419	-.061			
직업명성도	.545	.016	.625		
1979년 근무시간	.391	.026	.343	.385	
가구당 근로자수	.070	-.104	-.163	-.275	-.150
3) 임금노동 주변부					
성별	.325				
교육	.293	-.376			
직업명성도	.389	-.255	.532		
1979년 근무시간	.325	-.183	.124	.228	
가구당 근로자수	.345	-.253	-.041	-.089	.010
4) 임금노동 중심부					
성별	-.243				
교육	.308	-.236			
직업명성도	.385	-.086	.489		
1979년 근무시간	.394	-.102	.111	.198	
가구당 근로자수	.284	-.168	-.068	-.127	.019

본표에 나타난 모든 상관관계값은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값들이었음.

B) 회귀분석

	자영업		임금노동	
	주변부	중심부	주변부	중심부
상수	-17,887*	-22,978	-13,306*	-16,872*
가구당 근로자수	4,151*	2,804	5,763*	5,137*
	(.194)	(.082)	(.352)	(.306)
교육년수	776*	673	349*	504*
	(.135)	(.077)	(.088)	(.127)
1979년도 근무시간	2.95*	6.93*	4.33*	7.05*
	(.148)	(.211)	(.226)	(.305)
성별	-751	-22,361	-2,989*	-4,656*
	(-.010)	(-.122)	(-.085)	(-.105)
직업명성도	358*	525*	252*	270*
	(.283)	(.440)	(.301)	(.293)
조정된 R 값	.17	.34	.36	.38
모델의 유의수준	.001	.001	.001	.001
사례수	604	165	1,155	992

주: 성별에서 남자=0, 여자=1로 값을 주고 분석함.

*은 T값의 유의수준이 $P < .001$ 수준을 의미하며, 나머지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음.

()안의 값은 회귀계수(Value of Regression Coefficient).

들보다 돈을 적게 버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앞의 이변량분석에서 보았듯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학업년수가 짧게 나타났고, 평균 직업명성도도 낮게 나타났으며, 1979년에 일한 시간수도 상대적으로 적었다(따라서 상관계수행렬에서도 부적(負的) 관계를 나타냈다고 본다). 성별변수를 분석에서 가변수로 취급하여 분석했을 때,

4개 그룹에서 모두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남성근로자들이 여성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성과 관계된 사회적 차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했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좀더 확인해 보기 위하여 3차원 분석을 통한(three way breakdown) 부분상관관계(partial correlation)를 알아보았다. 이 경우 여성의 가구수입과 관련하여 좀 예외적인 결과가 교육정도(13년인 경우)와 직업변수에서 나타났다.

중심부부분의 사기업 남성 임금노동자들은 4,656달러로 가장 높은 가구수입이 예상된다. 그리고 자영업의 주변부부분과 중심부부분의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 가구수입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비슷한 결과의 해석을 직업명성도 변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중심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직업명성도가 한 단위 변함에 따라 525달러의 가구수입이 더 차이가 났다. 이는 주변부부분과 중심부부분의 사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도 두 배나 더 많은 수입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떤 종류의 자영업을 운영하는가가 자영업자들의 가구수입에 결정적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9년의 근로시간 수는 오히려 교육년수와 직업명성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민의 주변부부분 자영업자들은 아직도 노동집약적 측면에 치중해 있고 이익도 별로 없는 부문에 종사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만일 현재의 미국이민법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이 현추세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그리고 현재와 같이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미국으로 이민한다면 재미 한국이민들의 자영업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개정된 송출이민법은 5명 가족당 미국돈으로 200,000 달러까지 돈을 가져나가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간상인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이용이 가능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했다. 즉, 1) 순수 소수민족 중간상인의 전형의 하나로 한국이민자들의 소규모 사업자그룹을 연구대상으로 했고, 2) 이민 후 소규모 사업가로의 전환

이 이론적 측면에서 나타난 부정적 요인 또는 긍정적 요인 때문인가를 밝혀 보고자 했으며, 3) 한국이민 자영업자들의 경제구조에 나타난 역할 및 사회적 위치와 특성은 무엇인가를 분석했다. 연구자료는 1980년 미국 센서스의 5% 표본인 일반공개자료를 사용했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총 분석대상은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6,435명(주변부 자영업: 1,087명, 중심부 자영업: 222명, 주변부 임금노동자: 3,192명, 중심부 임금노동자: 1,934명)이었다. 분석방법은 이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을 사용했다.

종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연구대상이 된 6,435명 중 재미 한국이민자들의 20%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 80%는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였다. 한국이민의 자영업 20%라는 수치는 종전의 중국계 이민이나, 일본계 이민연구에서 보여준 47-60%에 비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수치이다(Bonacich, 1973: 588). 그러므로 자영업 참여율만 가지고 볼 때 미국에 이민온 한국인들이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으로 모두 설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분석 결과에 나타난 한국이민의 소규모 사업종사는 단순히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본 연구에서 오히려 자영업자들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들보다는 영어구사능력이 좀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다.

교육정도가 낮기 때문에 재미 한국이민들이 자영업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설명도 최근 한국인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이미 이민 전에 한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Xenos, Gardner, Barringer and Levin, 1987: 269). 상당수의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재미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사기업 임금노동자들보다도 더 높은 직업명성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자영업 개설에 민족적 자원이 긍정적 측면의 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일하고(매일 오랜 시간 일하고) 부지런하며, 값싼 가격으로 가족들이 자영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각각 주변부와 중심부로 나누었을 때 한국이민자들의 산업활동 상태는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재미 한국이민들이 미국사회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볼 때 한국인 자영업자들은 중간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부 자영업에서는 소매산업쪽에 58%, 개인서비스쪽에 12%, 그 밖에 수리 또는 수선서비스쪽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결과해석에서 주의할 점은 센서스자료만 가지고는 한국인 자영업자들이 미국내 대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가는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반면에 중심부 자영업에서는 전문직종(50%), 공장경영(20%), 건설(15%), 도매업(10%)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미 한국인 주변부 자영업자들은 가게, 스낵가게, 액세서리점, 세탁소, 봉제공장, 잡화점 등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심부 자영업자의 5명 중 2명은 의료 및 건강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분석그룹 중에서 중심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가구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이 주변부 자영업자, 중심부 사기업 임금노동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부 사기업 노동자 순으로 수입정도가 나타났다. 가구당 노동자수는 임금노동자 경우 가구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그 밖에 재미 한국이민 중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4개 그룹별로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함께 비교분석한 데에 의의가 크며, 앞으로의 자영업 연구에서는 언어구사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측면의 조사를 통한 심층분석이 유용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재미 한국이민들의 미주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자영업 연구가 수행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소수민족에 대한 소규모 사업운영에 대한 지원과 증진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이민자들의 다양한 소득 창출행위에서 나타나는 소득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한국이민자들의 기업행위연구는 이민정책, 이민자의 적응정책 개발, 그리고 이민자들을 위한 새 시민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한인 자영업 종사자들은 민족자원 이용의 유리한 점과 수입, 산업 및 직업종류, 직업명성도 측면에서 본 사회적 위치는 중간(middle strata)에 놓여 있어서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언어문제나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자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기존의 소수민족 중간상인 가설은 재미 한국이민의 경우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수민족 중간상인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Barringer, Herbert R. and David T. Takeuchi(1987), "Education, Occupational Prestige and Income of Asian Americans: Evidence from the 1980 Census", Revised Paper Prepared for the Annual Meetings of the ASA, New York City, Aug. 29-Sept. 3, 1986, Jan. (Mimeo).
- Blalock, Herbert H. Jr. (1967), *Toward a Theory of Minority Group Relations*, New York: Capricorn Books.
- Bonacich, Edna(1972), "A Theory of Ethnic Antagonism: The Split 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 546-59.
- _____ (1973), "A Theory of Middleman Minor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8: 538-94.
- _____ (1975), "Small Business and Japanese American Ethnic Solidarity", *Amerasia Journal* 3: 69-112.
- _____, Ivan Light and Charles Choy Wong(1976), "Small Business Among Koreans in Los Angeles", *Counterpoint: Perspectives on Asian America*, edited by Emma Gee, Los Angeles: Asian American Studies Center.
- _____ (1980), "Korean Immigrant Small Business in Los Angeles", in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edited by Roy Simon Bryce-Laporte, New Brunswick, N. J.: Transaction Books.
- _____ and John Modell(1980), *The Economic Basis of Ethnic Solidarity: Small Business in the Japanese American Commun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and Tae Hwan Jung(1982), "A Portrait of Korean Small Business in Los Angeles: 1977", *Koreans in Los Angeles: Prospects and Promises*, edited by Yu Phillips and Yang, Los Angeles: Koryo Research Institute.
- Chai, Alice Yun(1981), "Adaptive Strategies of Recent Korean Immigrant Women in Hawaii", *Research Institute on Women*, University of Kansas, Dec. (Mimeo).
- Choi, Byoung Mohk(1992), "Social Assimilation of Koreans in Hawaii", Paper Presented at the 34th Western Soci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Denver, Colorado, April 22-25.
- _____ (1987), "Toward a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Koreans in Small

- Buiseness i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mimeo).
- Choy, Bong Yoon(1979), *Koreans in America*, Chicago: Nelson Hall.
- Cobas, Jose A. (1987), “Ethnic Enclaves and Middleman Minorities: Alternative Strategies of Immigrant Adapta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30(2): 143-161.
- Dong-A Ilbo*, Feb. 3, 1988, March 5, 1987 and Aug. 8, 1987.
- Givens, Helen Lewis(1939), “The Korean Community in Los Angeles County”, M.A. Thesi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Hollander, Edward D. (1967), *The Future of Small Business*,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Publishers.
- Hurh, Won Moo, Hei Chu Kim and Kwang Chung Kim(1979), *Assimilation Patterns of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A Case Study of Korean Immigrants in the Chicago Area*, Washing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_____ and Kwang Chung Kim(1984), *Korean Immigrants in Am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Madison, WIS: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Inc.
- Kim, Bernice Bong Hee(1937), “The Koreans in Hawaii”, M.A. Thesis, University of Hawaii.
- Kim, Hyung-Chan(1977), “Ethnic Enterprises Among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The Korean Diaspora: Historical and Sociological Studies of Korean Immigration and Assimilation in North America*, edited by Hyung-Chan Kim, Cal. : ABC-Clio, Inc.
- Kim, Ilsoo(1981), *New Urban Immigrants: The Korean Community in New York*,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Kwang Chung, Hei Chu Kim and Hurh won Moo(1981), “Assimilation Patterns of Korean Immigrants in Chicago”, paper prepared for the 76 Annual Meetings of the ASA(mimeo).
- _____ and Won Moo Hurh(1985), “Ethnic Resources Utilization of Korean Immigrant Entrepreneurs in the Chicago Minority Area”,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9(1: Spring): 82-111.
- Koo, Hagen and Eui-Young Yu(1981),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ts Demographic Pattern and Social Implications for Both Societies”, Papers of the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No.74.

- Korean Community in Hawaii(1986), *Han In Rok*(Telephone Directory for the Koreans in Hawaii), Korean Community in Hawaii.
- Lieberson, Stanley(1980), *A Piece of Pie*,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ght, Ivan H. (1972), *Ethnic Enterprise in America: Business and Welfare Among Chinese, Japanese, and Black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80), "Asian Enterprise in America: Chinese, Japanese and Koreans in Small Business", *Self-Help in Urban America: Patterns of Minority Business Enterprise*, edited by Scott Comming, New York: Kennikat Press.
- _____ and Edna Bonacich(1988), *Immigrant Ethpreneurs: Koreans in Los Angeles, 1965-198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and Carolyn Rosenstein(1995), *Race,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in Urban America*, Aldine De Gruyter, New York.
- Marvratsas, Caesar(1995), "Greek-American Economic Culture: The Intensification of Economic Life & a Parallel Process of Puritanization", in *New Migrants in the Marketplace: Boston's Ethnic Entrepreneurs*, edited by Marilyn Halter,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Min, Pyong Gap(1983), "Minority Business Enterprise: A Case Study of Korean Small Business in Atlanta", Ph.D.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 _____ (1984), "From White-Collar Occupations to Small Business: Korean Immigrants, Occupational Adjustment", *The Sociological Quarterly* 25(Summer): 333-352.
- _____ (1986-87), "Filipino and Korean Immigrants in Small Business: A Comparative Analysis", *Amerasia Journal* 13(1): 53-71.
- _____ (1988), "Ethnic Business and Economic Mobility: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Paper Presentation at ASA Meeting(Mimeo).
- _____ (1996), *Caught in the Middle: Korean Merchants in America's Multi-ethnic Cit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 Park, Soon Ho(1988), "Identifying the Areal Extent of Korean Town in Los Angeles", M.A. Thesis a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 Temme, L.V. (1975), *Occupational Meaning and Measures*, Washington, DC, Bureau of Social Science Research.
- Tolbert, C., P.M. Horan and E.H. Beck(1979), "The Structure of Economic Segmentation: A Dual Economy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5):

1095-1116.

U. S. Bureau of Census / U. S. Dept. of Commerce (1981), *1980 Census of Population*, "Supplementary Report of 1980 Census of the Population, Race of the Population by State: 1980",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_____ (1984), *1980 Census of Population, Vol 1: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Chapter D: Detailed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Part 1: United States Summary*,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_____ (1993), *1990 Census of Population, General Population Characteristics, United States (CP-1-1)*,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U. S. Dept. of Commerce (1982),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1980: Technical Documentation*, Bureau of Census, Washington, DC (Summary Tape Title 3).

Wang, Jerry (1981), "Korean Assimilation in the Multi-Ethnic Setting of Hawaii: An Examination of Milton Gordon's Theory of Assimilatio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Honolulu.

White, Lawrence J. (1981-4), "Measuring the Importance of Small Business in the American Economy", *Monograph Series in the Finance and Economics*, New Yor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Monograph.

Xenos, Peter S., Robert W. Gardner, Herbert R. Barringer and Michael J. Levin (1987), "Asian Americans: Growth and Change in the 1970s", *Pacific Bridges: The New Immigration from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edited by James T. Fawcett and Benjamin V. Carino, New York: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Yoon, In-Jin (1995), "The Growth of Korean Immigrants Entrepreneurship in Chicago", *Ethnic and Racial Studies* 18(2: April): 315-335.

_____ (1996a), "Self-Employment in Business Among U. S. Ethnic Group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5(1), July 1996a: 123-154.

_____ (1996b), *On My Own: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 (in Pr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b).

Yu, Eui-Young (1982), "Occupation and Work Patterns of Korean Immigrants", in Yu, Phillips and E. S. Yang (eds.), *Koreans in Los Angeles*, Los Angeles: Koryo Research Institute.

_____ (1983), "Korean Communities in America: Past, Present, and Future",

Amerasia Journal 10(2) : 23-51.

Yum, June Ock (1979), "The Communication Patterns and Information Acquisition of Korean Immigrants in Hawaii",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bstract

**Toward a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Koreans in Small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Byoung-Mohk Choi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Korean immigrants' concentration in small business enterprises in the middleman minority sector including the periphery and core sectors, with the private wage and self-employed worker examined in each sector, employing the 5 percent public use sample from the 1980 United States census. One out of five Koreans aged 25-64 years is engaged in self-employed small businesses, while the majority of Koreans (4 out of 5) are in the private wage sector. In contrast to expectations, English language difficulties and inferior education are not the prime factors affecting self-employment small businesses. The Korean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both in the periphery sector and in the core sector showed the 'middle' strata of their position in the social structure in terms of their industry, occupation, earnings, etc.

